

RESUME

KIM SE-YEON
김세연



PERSONAL DETAILS

Name	김세연
Birthday	1979. 4. 4
Family	어머니 배우자



CONTACT

연락처

Mobile	010. 7744. 5588
Email	a35352@hanmail.net
Address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184-65 청담아트빌 402호



EDUCATION

교육

1998. 2	가평종합고등학교 졸업
2000. 2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광고디자인과 졸업



CERTIFICATE

자격증

운전면허 2종 보통	2002	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출판기능사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2003	한국산업인력공단
Illustrator 9.0	2002	ACS한국 어도비
스피치지도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심리상담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심리분석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색채심리상담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토의토론지도사 1급	2017	주)한국교육진흥협회



AWARDS AND OTHER

수상 및 기타사항

1994	경기도 백일장 중고등부 수채화부문 우수상
1997	문화잡지 '쥬니어' 스타 캐리커져 대상
2003	성남시 사이버문화축제 '그래픽경진대회' 문제출제, 심사위원
1998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 과대표, 14대 대의원회 상임의원



CAREER DETAILS

경력사항

(주)디오시스 1999.10 - 2002.05	사원	디자인실 근무 잡지광고 및 포스터 디자인, 매장과 홈쇼핑 POP, 디자인
(주)코리아포인트뱅크 2002.05 - 2003.07	사원	쿠폰사업팀 근무 OK cashbag쿠폰디자인, 포스터 홍보 디자인
고려기획인쇄 2003.07 - 2005.04	주임 ▶ 대리	성남시청, 문화행사 및 공연 홍보디 자인, 리플렛, 브로셔, 카다로그, 소식지 등 인쇄출판 디자인 전반
삼하기획 2005.04 - 2009.10 (2007년 '디자인은누리'로 상호 변경)	대리 ▶ 팀장	서울시 관련디자인(백서, 기획물), 동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종로구 등 구청 인쇄물 디자인, 패키지디 자인 외 다수 성남시 아트센터(전시기획부, 시립 교향악단, 국악단 등)공연 홍보디 자인, 리틀렌젤스 정기공연 디자인, BI/CI 디자인 등
DHone 2010.01 - 2013.08	실장	선거물 디자인, 광고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등 인쇄출판 디자인 전반
(주)더마힐 2013.08 - 2015.02	부서장	홍보부 근무 제품홍보디자인 총괄, 사보디자인, 사업계획PT(제안서)디자인, 브랜 드 디자인 및 마케팅 홍보 총괄
에스엘디자인 2015.03 - 2018.05	실장	보쉬코리아 사보 디자인, 서울시, 복지부, 교육부 인쇄 디자인, 한국 학회,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및 홍보디자인, 한화생명, 대학교 입학 및 홍보물 외 다수 디자인



TECHNICAL ABILITY

프로그램 사용능력

Adobe Illustrator CS6	중급
Adobe Photoshop CS6	중급
HTML5	초급
CSS3	초급
JAVASCRIPT	초급
JQUERY	초급
Adobe InDesign CS6	상급



SELF INTRODUCTION LETTER

자기소개서

웹 마중

편집디자인의 그리드가 인쇄물을 벗어나 온라인에서 재편집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떠나 어떤 작업환경이든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디자이너의 진짜 기술이며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경력은 잠시 내려놓고 신입의 초심의 자세로 귀사의 채용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디자인이란 밥상에서

편집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매년 시즌별 입찰준비로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제안서 기획과 디자인시안을 직접 작업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관공서 소식지와 대한항공 사보 및 현대NGB 등 관공서와 기업을 입찰을 성공시켰으며, 아쉽게 탈락했던 동대문구에서는 디자인시안이 너무 좋았으며 다른 부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디자인이란 밥상에서 제가 맡은 손가락은 거의 농친 적이 없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편집디자인과 웹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밥상에서 코딩이라는 손가락을 들고 치열한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역경'을 '경력'으로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며 저보다 나이 많은 대리도 있었고, 물과 기름 같은 팀원, 외골수 상사와 말씀이 곧 법인 대표님, 그리고 개념 상실 진상 거래처 등 여러 일을 겪어봤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할 땐 경영악화로 문 닫던 날까지 1인 5역을 했으며, 마지막 날 소주에 돼지껍데기를 먹으며 대표님과 훗날 다시 만나라며 기약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18년 경험과 노하우로 저는 어떤 극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욕적인 성격이지만 경솔하지 않으며, 매사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 중이며, 작업할 때는 추진력 강한 베테랑 작업자입니다. 단점은 경력(부담감)과 나이(팀원 간 소통)일 것입니다. 귀사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존버정신의 '늪지 않는 디자인'

디자인을 보며, 몇 살의 누가 작업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의 국적과 성별, 학력 (경력)과 나이에 따라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목적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수단이라 생각하며, 좋은 디자인은 오랜 시간 사랑받는 브랜드처럼 언제 봐도 촌스럽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바로 '늪지 않는 디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자로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콘셉트로 도출할 수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이너이자 기획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를 정의하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역량을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에 정답은 없습니다.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기에 존버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하고, 한 발짝 물러서 경청하며, 귀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코딩이라는 손가락을 사수하기 위해 오늘도 영타와 오타 사이에서 열심히 존버 중인 편집디자인은 경력, 웹디자인은 신입인 김세연이었습니다.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자기 자신을 이끌기 위해선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 당신의 가슴을 사용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뛰어난 독불장군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알톤 존스)

기획자, 카피라이터, 편집장으로 15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를 만났고, 각각의 품성과 특이성에 감탄 받았던 적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들은, 간격과 생태지를 가진 (희귀) 동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 단정짓기 어렵지만 때론 쉽게 단정되고 헤아리기 복잡하지만 가끔은 한번에 파악되는 등 도무지 형태를 정의하기 어려웠어요.

이 회사에 들어와 디자이너 김세연을 만났을 때가 생각합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배려가 넘치고, 사소한 친절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씩씩하고 강했지만, 그래서 더 여러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말이 옳았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자신을 굽히며, 끝내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며 실제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금 보고 있는 디자이너 김세연이 동그라미라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동그라미였던 그녀가 어떻게 현재 이렇게까지 입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겁니다.

만약 그녀가 잘했다면, 그녀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세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녀에게는 아닙니다. 칭찬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빛나고 훌륭해지는지 보는 일은, 꽤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덧붙여 그녀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며, 타고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에 말씀 드립니다. 그녀는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경계에 침범해 권력을 휘두르려는 타입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은, 칭찬하는 나 자신마저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어떤 회사건 그녀와 같은 사람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그녀가 좋은 디자이너라는 사실 외에도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회에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의 여러 가지 미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그녀가 자신의 일을 즐기고, 존경하고 받으며, 자신의 해야 할 것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다름'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를 알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수인

사보 / 매거진 편집장 / 마케팅 기획 팀장 / 카피라이터